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1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0.10~2025.10.15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역사, 감사, 성과, 기반, 전략
경제·관광	여행, 생산, 성장, 친환경, 관광객
지역·사회	캄보디아(사건/감금/수사), 도로, 범죄, 차량, 해상

※ 분석 기간 : 25.10.10.~25.10.1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역사	- 4·3 왜곡 논란, 정치권 갈등 심화 -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와 과제 - 제주의도제(道制) 실시 80주년 기념 제안
	감사	- 민선 8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돌입 - 제주도 경제정책 예산 관리 부실 지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총체적 부실 드러나
	성과	- 제주 경제성장전략, '재탕' 비판 직면 - 추석 연휴 제주 방문 관광객, 최고치 경신 - 일자리 박람회, 저조한 채용 실적
	기반	- 제주-칭다오 국제항로, 물류 기반 마련 - 신산업 및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추진 -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점검
	전략	- 새 정부 연계, 제주 경제성장전략 발표 - 북극항로 개척, 국가 차원 대응 전략 촉구 -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난관 봉착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여행	- 취약계층 위한 '제주 행복 여행'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모집 - 제주-칭다오 직항 개설 및 교류 활성화
	생산	- 제주산 골드키위 수출 확대 가속 - 제주 겨울무, 전국 생산량 99.7% 차지 - 용암해수 활용 프리미엄 소금 생산
	성장	- 재창업 지원 통한 유망 기업 성장 -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 성과 가시화 - 제주 경제성장전략 발표 및 기대
	친환경	- 재생에너지 100% 'RE100 캠프' - 폐감귤 컨테이너 재활용 패키지 - 친환경 농부와 소비자 소통의 장
	관광객	- 추석 연휴 제주 방문객 최고치 - 외국인 관광객 증가, 시장 회복 기대 - 특색 있는 축제로 관광객 유치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캄보디아(사건/감금/수사)	- 제주 청년 대상 감금·납치 - 캄보디아 관련 사건 수사 확대 - 20대 남성 실종 사건 발생
	도로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잇따라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문제
	범죄	- 도내 강력범죄 잇따라 발생 - 대규모 마약 유통 정황 포착 - 외국인 조직적·지능적 범죄
	차량	- 1톤 트럭 관련 사망사고 - 도난 차량 이용 도주극 발생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해상	- 어선 화재 및 사고 빈발 -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 - 해안 경계 및 안보 문제 대두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0월 10일~10월 15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670건임
 - 정치·행정 분야 321건, 경제·관광 132건, 지역·사회 217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역사, 감사, 성과, 기반, 전략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역사	- 4·3 왜곡 논란, 정치권 갈등 심화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화 '건국전쟁2' 관람과 "다양한 관점 존중" 발언이 제주4·3 왜곡 논란을 재점화함. 이에 오영훈 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유족회 등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사과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함 ·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상봉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회사를 통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함. 하성용 4·3특별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4·3특별법에 역사 왜곡에 대한 명백한 처벌 조항 신설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논란에 대응함
-------	----	---

정치·행정	역사	-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와 과제 · 국회에서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됨. 토론회에서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가 4·3을 인류 보편의 문제로 인정한 것이며, 더 이상 왜곡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임을 강조함. 향후 과제로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게 제시됨 ·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특별전이 열림. 유네스코에 등재된 4·3 기록물과 관련 문학, 미술 작품을 전시해 4·3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함. 피해신고서 등 기록물을 통해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함 - 제주도제(道制) 실시 80주년 기념 제안 · 2026년 제주도제 실시 80주년을 맞아 '제주도제 실시일'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옴. 이는 1946년 8월 1일, 제주가 전라권의 하위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광역도시로 승격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임 · 과거 195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도제 폐지론이 있었으나,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철회된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됨. 제주의 독립적 지위를 지켜온 선각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나 공원 조성 등 장단기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후대에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감사	- 민선 8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돌입 · 제주도의회가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이번 감사는 지난 3년간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 보완해야 할 과제를 짚어내기 위해 고강도 검증을 예고함 ·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건설 경기 침체, 관광 위기, 민생 경제 등 주요 현안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불필요한 선심성·낭비성 사업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도민중심, 민생우선' 원칙을 강조함 - 제주도 경제정책 예산 관리 부실 지적 ·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짐.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집행률이 8.5%에 불과했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예산이 소진된 후에도 약 3억 원의 쿠폰을 외상으로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음 · 약 1조 4000억 원의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었음에도 도정이 관련 핵심 경제지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지적됨. 과학적 데이터 분석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이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제주문화예술재단,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 운용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됨.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정치·행정	감사	부실하게 받고,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 처분이 내려짐 · 옛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며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발주한 사실이 드러남. 이 외에도 보조사업 사후관리 미흡, 비정규직 반복 채용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18건의 행정상 조치가 요구됨
	성과	- 제주 경제성장전략, '재탕' 비판 직면 · 오영훈 지사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으나, 신선한 내용 없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재탕'이라는 평가를 받음. 미분양 주택 지원, UAM 상용화 등 이미 발표된 정책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사업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아직 상장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 추진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을 주문함 - 추석 연휴 제주 방문 관광객, 최고치 경신 · 올해 추석 연휴 7일간 33만 9천 명이 제주를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특히 10월 4일에는 하루 5만 2022명이 방문하며 올해 일일 방문객 최고 기록을 경신함. 이는 제주 관광이 회복 단계를 넘어 안정적인 성장 흐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로 평가됨 · 제주도는 이러한 성과가 단순한 연휴 특수가 아니라, '제주의 선물' 여행지원금 캠페인, 가격 투명화를 위한 노력 등 선제적인 체감형 관광정책을 추진한 결실이라고 분석함. 외국인 관광객도 전년 대비 15.3% 증가하는 등 균형 잡힌 관광시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 - 일자리 박람회, 저조한 채용 실적 · 제주도가 주최하는 '도민 행복 일자리박람회'의 실제 채용 실적이 당초 목표 인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2023년에는 259명 채용 목표에 16명, 2024년에는 300명 목표에 17명만 채용되는 데 그쳐 '소리만 요란한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음 · 제주도는 기업에서 원하는 구직자가 없고, 구직자들은 면접 경험을 쌓기 위해 참여하는 등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을 저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함. 채용 성과와는 별개로,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도 크다는 입장을 밝힘
	기반	- 제주-칭다오 국제항로, 물류 기반 마련 ·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취항하며,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첫 해상 국제직항로가 개설됨. 이는 기존 부산항 경유 대비 운송 기간을 2일 이상 단축하고 물류비를 절감시켜, 제주가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북극항로 거점항만 연구용역에 제주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됨. 해양수산

	기반	부 국정감사에서 제주항을 핵심 기항지로 육성하여 해양물류와 크루즈 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해수부는 내년 연구용역에 크루즈 관련 내용 포함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 신산업 및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추진 ·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우주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함.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한화시스템을 앵커기업으로 위성 생산에서 해상 발사까지 이어지는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함 ·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함. 현재 11MW 규모의 실증 사업을 최대 100MW급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신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생산·보급 기반을 강화함.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ESS, V2G 등 신사업 모델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점검 · 민선 8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소트램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임. 특히 섬식정류장이 도입된 BRT 서광로 구간에 대해 도민 수용성 확보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제2기 대중교통 도민서비스평가단이 공식 출범함. 학생과 일반도민 34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2년간 현장 점검과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정책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요응답형 오피버스 등 신규 정책에 대한 평가도 포함됨
정치·행정	전략	- 새 정부 연계, 제주 경제성장전략 발표 · 오영훈 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와 연계한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함. '알찬 성장'을 비전으로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AI·디지털 혁신경제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경제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 등 4대 전략과 18개 중점과제를 제시함 · 주요 전략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1조 원 규모 융자 지원, 미분양 주택 해소 인센티브 패키지, AI 행정비서 도입,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사업 확대, 2040년 내연기관차 등록 중단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포함한 경제 대전환 로드맵을 공개함 - 북극항로 개척, 국가 차원 대응 전략 촉구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북극항로 상업적 완주에 성공한 사례를 들며, 한국의 대응 전략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함. 해수부(물류), 산업부(조선), 외교부(외교)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국가 대응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항을 북극항로의 핵심 기항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됨. 해양물류는 물론 크루즈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교두보로서 제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거점항만 연구용역에 제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함 -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난관 봉착

경제·관광	· 단순 관광을 넘어 섬과 힐링, 문화예술 체험이 결합된 당일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단체 또는 개인 단위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함.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모집 · 제주도가 서귀포 강정항을 출발하는 크루즈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함. 1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13만 5천 톤급 '아도라 매직시티호'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 중국 상하이로 거쳐 제주로 돌아오는 일정임 · 총 12팀(24명)을 모집하며, 1인당 승선비 180만 원 중 80만 원(팀당 160만 원)을 지원함. 10월 19일까지 구글폼으로 신청받아 20일 공개 추첨으로 선발하며, 체험단은 귀국 후 만족도 조사와 체험 후기를 제출해야 함. 이는 향후 크루즈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임 - 제주-칭다오 직항 개설 및 교류 활성화 · 최근 제주-칭다오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서귀포시상공회가 중국 칭다오에서 무역촉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함. 경제, 무역, 관광 등 다방면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양 도시의 산업 및 관광 인프라 공유, 기업 간 교류 확대, 물류·수출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제주 방문단이 칭다오를 방문하여 10월 16일 제주-칭다오 정기 항로 취항을 앞두고 물류 현장 시찰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함.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가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생산	- 제주산 골드키위 수출 확대 가속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고당도 골드키위 선호 추세에 맞춰 국내 육성 품종의 수출 확대를 추진함. 수출 전문단지 육성 및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2028년까지 골드키위 수출량을 400톤으로 늘릴 계획임. 현재 제주산 키위 수출량은 국내 전체의 59%를 차지함 · 성산일출봉농협을 중심으로 신품종 '감황'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국제 통용 기준인 '글로벌 갭(GAP)' 인증을 취득하는 등 품질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음. 지난해 대만에 49톤을 수출하며 해외시장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둠 - 제주 겨울무, 전국 생산량 99.7% 차지 · 제주도는 겨울무 전국 생산량의 99.7%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2024년산 기준 조수입은 3,547억 원에 달함. 이는 제주 전체 발작물 조수입의 32.8%를 차지하며 농가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제주농협 무·배추제주협의회는 가격 안정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 유도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임 · 최근 열린 제주농협 무·배추제주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성산일출봉농협 박명종 조합장이 회장으로 재선출됨. 신임 임원진은 2027년까지 활동하며, 겨울무의 적정 재배 유도, 조기·분산 출하 지원,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제주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을 다짐함 - 용암해수 활용 프리미엄 소금 생산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인 (주)제주소금이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하여

경제·관광	생산	프리미엄 고체 소금을 생산함. 화산암반층에 저장된 용암해수는 미세플라스틱 등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며, 마그네슘, 규소 등 미네랄 함량이 높아 차별화된 제품 생산이 가능함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제주소금에 시드머니 투자를 완료했으며, 제주소금은 용암해수단지에 입주해 시제품 개발과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 중임. 이번 투자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주센터의 직접투자는 총 49개사, 57억 6천만 원으로 확대됨
	성장	- 재창업 지원 통한 유망 기업 성장 ·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의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사업'이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며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육류 B2B 플랫폼 '핑크패커' 정진 대표는 이 사업을 통해 사업 재정비, 투자 유치, 법무 등 실무 교육을 받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높임 · 핑크패커는 AI 기반 매칭으로 국가별 '비선호 부위' 육류를 수요 시장과 연결해 폐기·재고를 줄이는 플랫폼임. 단기적으로는 호주·베트남·한국을 중심으로 거래를 확장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중동으로 파트너십을 넓혀 데이터 기반 SaaS로 진화할 계획을 가짐 -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 성과 가시화 · 제주도가 2018년부터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43개 기업을 발굴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 501개 창출, 매출 732억 원, 투자유치 109억 원의 성과를 달성함. 올해 상반기에만 5개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55개, 매출 118억 원을 기록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2025 관광스타트업 데이' 토크콘서트에서 업계는 제주형 특화 관광펀드 조성, 직원 숙소 지원, 판로 확대 등을 건의함. 오영훈 지사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기업과 현장이 제주 관광 혁신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함 - 제주 경제성장전략 발표 및 기대 · 제주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돈맥경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경제 활력 대책 중심의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함. 오영훈 지사는 민생과 직결된 정책은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과제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균형 있는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함 ·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도의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4대 전략과 18개 중점 과제가 제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체질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함
	친환경	- 재생에너지 100% 'RE100 캠프' · 제주도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시 동북·북촌풍력발전단지에서 'RE100 캠프·국 페스타'를 개최함. 지난해에 이어 규모를 3배로 확대해 300여 명의 도민과 관광객이 참가하며, 참가자들은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 100%로 캠핑하며 청정에너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함 · 올해는 'RE100 국 페스타'가 새롭게 추가되어 친환경 차량 전력을 이용해 지역 RE100 기업의 식재료를 요리하는 체험을 제공함. 또한 제주 드림타워의

경제·관광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이 더해져 민관 ESG 협력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됨 - 폐감귤 컨테이너 재활용 패키지 · 하효살롱협동조합이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폐감귤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미니 콘테나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음. 매년 3만 개 이상 버려지는 감귤 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친환경적인 시도임 · 개발 중인 패키지는 컨테이너의 특징을 살려 과즙뿐만 아니라 문구류, 잡동사니 등을 정리하는 다용도 박스로 활용 가능함. 패키지 판매 수익금은 다시 지역 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보, 교육 등에 지원될 예정으로, 자원 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목표로 함 - 친환경 농부와 소비자 소통의 장 · 제주도가 10월 18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제주 친환경농산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함.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부들이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키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소통하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행사장은 먹거리, 알거리, 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농부가 직접 운영하는 '자연상점', 화분 만들기, EM 세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마당, 청년 농부들의 스토리를 나누는 이야기마당 등이 운영되어 온 가족이 함께 친환경농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음
	관광객	- 추석 연휴 제주 방문객 최고치 · 올해 추석 연휴 기간(10월 3~9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약 33만 9,000명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11% 증가함. 특히 10월 4일 하루에만 5만 2,022명이 방문해 올해 일일 방문객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제주관광이 회복 국면을 지나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줌 · 제주도는 이러한 성과가 단순 연휴 특수가 아닌 '제주의 선물' 대국민 여행지원금 캠페인, '제주여행주간' 운영 등 선제적인 체감형 관광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함. 향후 수학여행 및 단체관광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도 관광객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 관광객 증가, 시장 회복 기대 ·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관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올해 10월 9일까지 누적 외국인 방문객은 약 17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으며, 직항노선 확대와 현지 홍보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일본, 싱가포르 등 근거리 시장의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는 내·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잡힌 관광시장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특색 있는 축제로 관광객 유치 · 제주도가 지역 특산물인 흑돼지를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섬. 오는 10월 25~26일 새별오름에서 '2025 제주도새기축제'가, 18~19일

경제·관광	관광객	조천 길갈 팜 랜드에서는 '2025 블랙 포크 페스티벌'이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 · 제주도새기축제는 가수 양지은, 스컬&하하 등의 축하공연과 돼지고기 즉석 경매, 황금돼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블랙 포크 페스티벌은 흑돼지 맛 비교 체험, 요리 교실, 밴드 공연 등을 마련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축제로 기획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캄보디아(사건/감금/수사), 도로, 범죄, 차량, 해상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캄보디아(사건/감금/수사)	- 제주 청년 대상 감금·납치 · '단기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20대 제주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조직이 감금·폭행·협박하는 사건 다수 발생.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와 개인 물품, 금융 정보 등을 빼앗긴 채 시설에 억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 한 피해자 가족의 경우, 범죄조직의 금전 요구에 따라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달함. 피해자는 송금 다음 날 풀려나 귀국했으나,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	----------------	--

지역·사회	캄보디아(사건/감금/수사) - 캄보디아 관련 사건 수사 확대 ·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제주경찰청에 제주도민 피해 신고가 총 5건 접수됨. 20대 남성들의 실종 신고가 추가되면서 수사 대상이 늘었으며,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죄 연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임 · 고평기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표명함. 접수된 5건 중 1명을 제외한 4명은 현재 귀국한 상태이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필요시 본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20대 남성 실종 사건 발생 · 지난 6월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A씨가 4개월 넘게 연락 두절 상태이며 입국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함. A씨 가족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캄보디아발 범죄 사건을 접하고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짐 · 경찰은 현재 A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임. 앞서 연락이 두절되었던 다른 실종 신고자 1명은 3개월 만인 이달에 귀국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례에 대해서도 범죄 연루 여부를 재수사하고 있음
	도로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잇따라 ·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상호동 등에서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들이 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한 사고는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하여, 고령 보행자 안전 시설의 미비 문제를 드러냄 · 경찰은 트럭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임. 운전자들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무 준수 여부가 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 '민식이법'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함.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매년 수천 건이 적발되고 있으며, 강화된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음 · 제주시청 대학로 등 상가 밀집 지역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임. 제주시의 연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만 건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신고제와 고정식 CCTV를 통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문제 · 제주지역 내 도로 폭이 좁거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점이 총 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됨.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며, 재난 대응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지역·사회	도로	· 진입 곤란 사유는 도로 협소가 7곳, 불법 주정차가 1곳으로 조사됨.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로 지목되어, 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제기
	범죄	- 도내 강력범죄 잇따라 발생 ·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6년간 교제한 연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숨졌으며, 과거 이들 사이에 교제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중국 국적의 남성이 동거인을 2시간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6년의 원심을 유지함. 피고인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 - 대규모 마약 유통 정황 포착 · 추석 연휴 기간, 서귀포시 성산읍 해변에서 6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의 신종 마약 '케타민' 20kg이 발견되어 충격을 줌. 해양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마약은 벽돌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겉면에는 '차(茶)'라는 한자가 표기되어 있었음 · 해경은 국제 마약 조직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전담반을 구성함. 현재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포장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을 수사할 방침임 - 외국인 조직적·지능적 범죄 · 중국인 남성 3명이 제주시 노형동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주인의 시선을 돌린 뒤, 14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남. 이들은 범행 후 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주하려다 신고 접수 1시간 20여 분 만에 경찰에 모두 검거됨 · 10년간 불법체류 해온 중국인이 도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2km가량 도주극을 벌인 끝에 검거됨.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달간의 끈질긴 잠복 및 순찰 끝에 범인을 붙잡음
	차량	- 1톤 트럭 관련 사망사고 · 제주 시내 곳곳에서 1톤 트럭이 연루된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서귀포시 상호동과 제주시 한림읍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들이 1톤 트럭에 치여 숨졌으며,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음 · 사고 지점 중 한 곳은 노인보호구역이었으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로 확인됨. 이에 고령 보행자 및 소형 화물차량 운행이 잦은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을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도난 차량 이용 도주극 발생 · 장기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도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심에서 2km가량 위험한 도주극을 벌임. 경찰

지역·사회	차량	은 순찰차로 도주 차량의 진로를 막고, 차에서 내려 다시 도망가던 운전자를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함 · 경찰은 '불법체류 중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한다'는 제보를 받고 두 달간의 끈질긴 예방 순찰을 통해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검거에 성공함. 경찰은 도난 차량의 정확한 입수 경위 등 추가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 점자블록, 횡단보도 등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 별도의 지정 반납 장소가 없어 사용자들이 아무 곳이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관련 사고 급증으로 국회에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임.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는 운영 업체를 관리·감독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으로, 차고지 반납 의무화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해상	– 어선 화재 및 사고 빈발 · 마라도 남동쪽 약 35km 해상에서 조업지로 이동하던 129톤급 대형선망 어선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함. 승선원 27명은 인근 선박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나, 2명이 화상을 입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최근 5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총 6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됨. 특히 인명피해의 80%가 수온이 낮은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항 부주의, 정비 불량 등 인적 요인으로 분석되어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함 –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 ·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그물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해 선박의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10월 들어서만 9건이 접수되는 등 폐어구 무단 투기가 선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충돌 및 기관 손상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차귀도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대규모 해양 정화 활동을 벌여 40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함. 또한, 시민 다이버들이 참여하는 수중 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평대리 해변 일대에서 수십 미터 길이의 폐어망을 걷어내는 등 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짐 – 해안 경계 및 안보 문제 대두 ·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한 사건으로 인해 해상 경계망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기상 악화로 열상감시장비(TOD)가 고무보트를 명확히 식별하지 못했으며,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안 경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 ·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해안경비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힘. 이에 제주해양경비단과 서귀포해경은 미확인 선박 추적 등 해상 위협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있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